



1842년 3월 17일,

에머 스미스는 새로 조직된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의 회장이 된 직후에 이 단체의 목적을 이와 같이 밝혔다. “궁핍한 이들을 찾아 돕고”, “선을 행하고자 열망하며”, “도덕적인 표준을 수호하는 것”¹

“상호부조회는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조직입니다.”²
—조셉 스미스



쏟아지는 주님의 영



상호부조회 창립 175주년을 맞이하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사랑과 힘을 실어 전하는 메시지. 회장단이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느낌과 통찰, 그리고 간증을 들어 보자.

저희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.”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다.(제1보좌: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, 제2보좌: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) “영생을 바라보며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서로 돕는 것 외에 무슨 일이 더 필요하겠습니까? 하나님은 모세서 1장 39절에서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. ‘보라, 사람[즉, 남성과 여성]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—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, 나의 영광이니라.’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돕습니다. 그 준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기르고, 의식과 성약을 통해 개인과 가족, 가정을 강화하며, 하나로 단합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이루어집니다.”³

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, 후기 성도 여성인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좋은 면으로 ... 두드러지며 달라 보일 것입니다.⁴ 저희는 우리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.”

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교회 잡지의 기자와 진행한 본 인터뷰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.